

| 최종보고서 |

논산아리랑 연구용역

논산시의회

CONTENTS

서론	02
논산아리랑 약보	04
제1장 민족의 노래 아리랑	07
1-1. 민요로의 아리랑	
1-2. 권역으로 나뉜 아리랑	
제2장 아리랑의 권역별 종류와 특징	11
2-2. 강원 중심의 아리랑	
2-3. 충청 중심의 아리랑	
2-4. 경상 중심의 아리랑	
2-5. 전라 중심의 아리랑	
제3장 시공(時空)을 뛰어넘은 아리랑	17
3-1. 아리랑 주제의 창작 국악 관현악	
3-2. 아리랑을 주제로 한 대중음악	
3-3. 외국에서의 아리랑	
제4장 구전 아리랑을 최초 채보한 호머 헐버트	22
4-1. 진정한 한국인의 친구 '호머 베절릴 헐버트'	
4-2. "한국인에 대한 사랑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	
제5장 논산을 하나로 짬매주는 논산아리랑	26
5-1. 논산아리랑 노랫말의 의미	
5-2. 한(恨)을 넘어 흥(興)을 노래한 논산아리랑	
5-3. 워너뮤직에 공식음원 출시하며 세계 무대에 진출	
제6장 논산아리랑의 가야 할 길	38
6-1. 중산층, 지역소멸, 문화의 인과관계	
참고문헌	40

서론

논산을 하나로 짬매주는 논산아리랑

아리랑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민요로, 수 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 민중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아리랑은 그 자체로 한국인의 기쁨과 슬픔, 애환과 희망을 대변하는 노래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이 노래에는 연인과의 이별, 가족 내의 갈등, 외세에 대한 저항 등 우리 민족이 삶 속에서 겪어온 다양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이처럼 아리랑은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담은 문화적 상징으로, 전통음악의 틀을 넘어 한국 현대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 널리 사랑받고 있으며, 그 문화적 가치와 영향력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사랑받고 있다.

한국인이란 누구나 아리랑의 선율과 가사를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오랜 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불리며, 공교육을 통해 전국적으로 전승되었다. 이는 단순한 민요의 차원을 넘어 한국인의 삶과 정체성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게 하였으며, 더 나아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도 민족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어 왔다.

또한, 각 지방에는 지역마다 고유의 아리랑이 존재하며, 그 지역 특유의 문화와 정서를 담아냄으로써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아리랑은 대중음악, 영화, 뮤지컬,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와 매체에서 주제 또는 모티브로 채택되며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상징이자 음악적 영감의 원천으로 자리잡은 아리랑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사랑받고 있으며, 특히 한류 열풍과 더불어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는 2011년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아리랑 선율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오마주 투 코리아(Homage to Korea)'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임으로써, 한국인의 정서를 세계 무대에 강렬하게 알리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로서 아리랑은 국내외에서 중요한 문화적 상징이자 감동의 원천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는 고유의 지역 아리랑을 발굴하고 전승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아리랑은 그 지방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민들에게 친숙하고 가까운 문화적 자산으로 기능하며, 지역사회와 민간단체에서는 이러한 지역 아리랑의 대중화와 전승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산시의회가 추진하는 논산아리랑 연구 용역은 논산만의 고유한 아리랑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논산시의회는 아리랑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논산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논산아리랑을 개발하여 지역민의 정서와 문화를 논산아리랑에 담아내고자 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 용역은 단순히 기존 아리랑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논산의 역사와 정서가 녹아들 수 있는 논산아리랑을 만들어 논산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논산 아리랑을 통해 지역 주민 간의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나아가 논산이 지닌 독자적인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또한, 이 연구는 논산이 지닌 역사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바탕으로 논산만의 차별화된 논산아리랑을 구성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논산아리랑이 지역문화 함양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지역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처럼 논산아리랑 연구 용역은 논산만의 고유한 아리랑을 개발하여 논산시민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자리잡게 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문화 상징을 통해 논산을 하나로 연결하며,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논산 아리랑 (Nonsan Arirang)

곳거리 장단

김홍신 작사
박세환 작곡

$\text{♩} = 60$ Gb/Ab

Piri solo

4 Gb Ab/Gb Fm7 Bbm7 Ebm7 Ab7 Db Ab^{sus4} Ab7 Db Bbm7

아 - 리 랑 아 - 리 랑

8 Gb Ab/Gb Fm7 Bbm7 Gb Ab/Gb Fm7 Bbm7 Ebm7 Eb/G Ab^{sus4}Ab7 Gbm7 Fm7

아 라 - 리 요 - - 황 산 별 들 - 녀 에 태 평 성 - 대 요 - - 백 제 의 훈 서 린

12 Ebm7Ab7 DbM7 Db7 Gb Ab/Gb Db/F Bbm7 Ebm7Eb/G Ab^{sus4}Ab7 Gbm7 GbmM7 Fm7 Bbm7

양 반 고 을 - - 천 년 의 신 비 - 은 진 미 륵 - - 유 교 의 지 혜 - 돈 암 서 원 -

17 Ebm7 F7 Bbm7 Gb Ab^{sus4} Ab7 Db Bbm7

천 하 제 일 선 비 들 납 신 다 - - - - 아 - 리 랑 아 - 리 랑

20 Gb Ab/Gb Fm7 Bbm7 Gb Ab/Gb Fm7 Bbm7 Ebm7 Ab7 Db Gb/Ab Ab7

논 산 아 - 리 랑 - - 황 산 별 들 - 녀 에 태 평 성 - 대 요 - -

24 Db Bbm7 Gb Ab/Gb Fm7 Bbm7 Gb Ab/Gb Fm7 Bbm7 Ebm7 Eb/G Ab^{sus4}Ab7

아 - 리 랑 아 - 리 랑 아 라 - 리 요 - - 금 강 - 물 걸 춤 사 워 로 흐 - 른 - 다 -

28 Gbm7 Fm7 Ebm7 Ab7 DbM7 Db7 Gb Db/F Bbm7 Ebm7 Eb/G Ab^{sus4}Ab7

개 태 사 쌍 계 사 종 소 리 그 음 - - 계 동 산 노 성 산 - - 울 울 창 창 - -

32 Gbm7 GbmM7 Fm7 Bbm7 Ebm7 F7 Bbm7 Gb Ab^{sus4} Ab7

훈 련 소 깃 발 - 펠 렉 펠 렉 - - 옥 녀 봉 선 풍 은 성 인 김 대 권 - - - - 7

36 Db Bbm7 Gb Ab/Gb Fm7 Bbm7 Gb Ab/Gb Fm7 Bbm7 Ebm7 Ab7 Db

아 - 리 랑 아 - 리 랑 논 산 아 - 리 랑 금 강 물 걸 춤 사 워 로 흐 - 른 - 다

40 $G\flat/A\flat$ $A\flat^7$ $D\flat$ $D\flat/C$ $B\flat m^7$ $D\flat/A\flat$ $G\flat M^9$ $D\flat/F$ ²

Interlude : Taepyeongso solo

44 $E\flat m^7$ $D\flat/F$ $G\flat M^7$ $A\flat^7$ $D\flat$ $E\flat m$ $D\flat/F$ $G\flat$ $E\flat^7/G$

+ *Samul-nori*

48 $G\flat/A\flat$ G/A A^{sus4} A^7 ***ff***

50 D Bm G A/G $F\sharp m^7$ Bm^7 G A/G $F\sharp m^7$ Bm^7 Em^7 $E/G\sharp$ A^{sus4} A^7

아 - 리 랑 아 - 리 랑 아 라 - 리 요 - - 탐 정 호 물 - 보 라 무 - 지 - 개 라 - -

54 $G M^7$ $F\sharp m^7$ Em^7 A^7 DM^7 D^7 G A/G $D/F\sharp$ Bm Em^7 $E/G\sharp$ A^{sus4} A^7

사 각 사 각 하 니 연 산 대 추 - - 왕 밥 도 독 이 지 - - 강 경 짓 갈 - ,

58 $G M^7$ $Gm M^7$ $F\sharp m^7$ Bm Em^7 $F\sharp^7$ Bm G

친 하 제 일 맛 는 산 딸 기 달 콤 한 양 촌 곳 감 - - 풍 미 념 친 다 상 월 고 구

61 A^{sus4} A^7 D Bm G A/G $F\sharp m^7$ Bm^7 G A/G $F\sharp m^7$ Bm^7

마 - - - 아 - 리 랑 아 - 리 랑 는 산 아 - 리 랑 탐 정 호 물 - 보 라

Keep magnificently

65 Em^7 A^7 D G/A D Bm G A/G $F\sharp m^7$ Bm^7 G A/G $F\sharp m^7$ Bm^7

무 - 지 - 개 라 - - 아 - 리 랑 아 - 리 랑 는 산 아 - 리 랑 - - 아 리 랑 아 라 리 요

69 Em^7 A^7 D Bm Em^7 A^7 D Bm Em^7 A^{sus4}

는 산 아 - 리 랑 - - 는 산 아 - 리 랑 - - 는 산 아 -

72 A D Gm/D D

p 리 랑

제1장 민족의 노래 아리랑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에서 남한의 정은순과 북한의 박정철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등장했고 남북선수단 180여명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아리랑에 맞춰 함께 화합의 행진을 했다. 당시 12만의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이 장면은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됐다. 이보다 앞선 1991년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단일팀이 구성돼 출전했었다. 우리 남북단일팀은 여자단체전에서 덩야핑을 앞세운 세계 최강의 중국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그 대회에서 관중석의 남북응원단은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응원했다. 가장 최근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남북의 응원단은 역시 아리랑을 함께 불렀다.

이렇듯 우리 민족에게 있어 아리랑은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민족의 상징적이며 대표적 노래라는 것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2012년 우리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이든, 어느 사대이든 시공을 뛰어넘어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달래고 기쁨을 함께 했던 아리랑!

이에 대해 ‘H.B.헐버트’란 미국 선교사가 1985년 조선일보 10월 30일자 신문에서 ‘가장 오래된 아리랑 음악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아리랑’에 관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아리랑을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노래는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중략)... 나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노래는 3520여 일간 지속되어 왔으며, 1883년에 대중적 애호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중략)... 나는 어느 누구도 그 이상 정확한 숫자를 밝혀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가락은 즉흥곡의 명수인 조선인에 의해 수많은 즉흥곡으로 대치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후렴은 변하지 않고 쓰인다.”

1-1. 민요로서의 아리랑

민요란 민중들 사이에서 구전(口傳)으로 내려오는 전통적이고 소박한 노래를 말한다.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악곡이나 사설이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노래 부르는 사람에게 맞게 달라질 수 있다. 민요는 이러한 특징을 지니기에 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예술이라고 평가된다. 민요는 민속이고 음악이며 문학이다. 민속으로서의 민요는 구비전승(口碑傳承)의 하나이되 생업(生業), 세시풍속, 놀이 등을 기능으로 하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집단적인 행위를 통하여 불리어지는 점이 구비전승의 다른 영역과 다르다.

음악으로의 민요는 일반 민중이 즐기는 민속음악에 속하는 창악(唱樂)이되, 전문적인 수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서 판소리, 무가, 시조, 가사(歌詞) 등과 다르다. 민요는 이러한 민속, 음악, 문학의 복합체로 존재할 따름이지 그 세 측면이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하듯 민요는 세대와 세대를 거쳐 불려온 연속성, 부르는 사람마다 다른 차별성, 각 지역마다 달라지는 지역선정성, 시대에 따라 변하는 시간적변화성 등이 있기 때문에 민요연구는 변형을 대전제로 두어야 할 것이다. “십리부동풍(十里不同風) 백리부동속(百里不同俗)”이라고 하듯이 십리 밖 바람과 백리 밖 민속이 같지 않다는 뜻으로 풍속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풍(風), 바람은 공기의 이동이 아니라 삶의 움직임이며, 그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부른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삶의 모습들이 표준화되고 획일화되어 ‘십리..., 백리...’의 의미를 잃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지만 민요연구에 있어서는 원천인 것이다.

B.C.2세기경에 한문자(漢文字)가 들어오면서 상층인사들이 한시를 읊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도 민요는 여전히 상하에서 애용되었으며 속담대로 ‘낫 놓고 ㄱ字도 모르는 村夫’일지라도 아리랑은 불렀으니 민요가 가장 폭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민중의 공명(共鳴)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즉 향가(鄕歌) 이전에도 민요는 존재했으며 그 이후에도 문학과 병행해서 전승되어 왔고 현재도 민요는 불려지고 있으니 그 역사가 유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랜 전통을 가지는 민요 중에서 가장 널리 불려지는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다. 아리랑은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 되었고 특히 외국에서 한국하면 우선 아리랑을 연상할 만큼 특징적인 것이 되었다. 아리랑은 민요들 중 한국인을 상징하는 민요이며 한국인의 정서에 있어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구심점적인 상징적 가치에 대해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아리랑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민요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한국 민요이다.

선고(先考)에 따르면 이러한 한국의 아리랑을 후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896년 헐버트(H. B. Hulbert)는 선교전문잡지인 『한국유기』에 〈The Korean Vocal Music〉이란 글을 통해 “아리랑은 한국인에게 쌀이다.”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매일 매일 먹는 쌀이지만 물리지 않고 귀한 것인 것처럼 아리랑 또한 흔한 노래인 것 같지만 우리 민족과 수 천년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뱉속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눈과 밭을 메는 일을 할 때는 노동요로,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독립운동가로, 월드컵에서는 응원가로, 멀리 외국에서는 고향을 그리는 애국가 등으로 아리랑은 우리 생활 속에 숨 쉬고 있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감정이 엉키고 또 그 공통된 심정을 표백한 노래인 만큼 그 유래에 대한 설도 여러 가지이고, 아리랑의 종류도 50여종 3000여곡에 이른다고 한다. 경기도의 〈아리랑〉과 강원도의 〈정선아리랑〉과 〈강원도아리랑〉, 경상도의〈밀양아리랑〉, 전라도의〈진도아리랑〉 등 여러 종류의 민요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노래로서 지역적 정서를 나타내는 음악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아리랑이 우리나라 대표 민요로서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정선아리랑만이 1971년 11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지방문화재로 인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규모나 위상이 축소되어 있다. 2012년 12월 유네스코에 우리의 아리랑이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지만 아직 아리랑에 관한 연구나 콘텐츠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1-2. 권역으로 나뉜 아리랑

한국 민요의 분포 또는 권역(圈域)은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라 음악적 특징, 행정구역, 지역 명칭 등으로 나누고 있어 통일성과 보편성을 갖고 있지 않다. 즉 권역이라는 지정된 용어는 각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민요의 권역에 대한 모호성은 아래의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권역이라는 설정은 어느 지역의 몇 군데를 샘플 조사해보니 ‘그렇다더라.’라는 정도로 결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둘째, 학자들이 제시한 근거와 결정된 시점이 권역설정의 기준 시간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셋째, 상기한 사실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아리랑에 관한 시리즈는 권역적이지 않으며, 이미 아리랑은 차별화된 하나의 묶음으로 된 시리즈로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수시로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모든 권역의 아리랑은 그 권역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 민족 전체가 공유되고 있는 바, 그 권역이라는 개념은 이미 사멸되었고 전국적 유통구조에 따른 공유적 민족적 시리즈물로 차별화된 한가지의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굳이 권역을 부여하여 설명하려고 함은 우리나라의 전 지역, 전 시대에 걸쳐 전승되어온 것이기에 도식적으로 아리랑을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리랑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되게 일반적으로 나누는 권역으로는 전라도지방(남도), 경기도지방(충청도 일부지방 포함), 서도지방(황해도, 평안도), 동부지방(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제주도 지방 등의 5개 권역이다. 그러나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이는 일반적 주장일 뿐 어떤 패턴이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경기 중심의 아리랑’에는 서울 긴아리랑·본조아리랑·구아리랑·경기아리랑 등이 있고, ‘강원 중심의 아리랑’에는 강원도아리랑·고성자진아라리·정선아리랑 등이 있다. ‘충청 중심의 아리랑’에는 중원 아라성·괴산아리랑 등이 있고, ‘경상 중심의 아리랑’에는 밀양아리랑·경상도아리랑·상주아리랑·영천아리랑 등이 있다. ‘전라 중심의 아리랑’에는 진도아리랑·정읍아리랑·무주아리랑 등이 있다. 이외에도 ‘북한 지역 중심의 아리랑’에는 해주아리랑·서도아리랑·원산아리랑 등이 있고, 해외에는 중국의 연변아리랑·러시아의 사할린 본조아리랑·일본의 아리랑 등이 있다. 각각의 아리랑은 명칭 뒤에 ‘아리랑’이라는 이름이 붙어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이들 각각의 아리랑은 사실과 곡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음악적으로 서로 어떤 관계성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제2장 아리랑의 권역별 종류와 특징

- 사설(가사)을 중심으로

2-1. 서울·경기 중심의 아리랑

(1) 사설의 종류

사설(가사)의 종류로는 경기아리랑, 구아리랑, 구조아리랑, 긴아리랑, 본조아리랑, 아리랑 등이 있다.

(2) 사설의 성격

서울·경기 중심의 아리랑의 후렴 부분을 보면 긴아리랑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구료 아리랑 아리 얼썩 아라리로구료’ 라는 후렴구를 사용하고 그 외에 아리랑, 본조아리랑, 구조아리랑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의 후렴구를 사용한다.

(3) 사설의 내용

첫째, 경기아리랑의 사설은 임과의 사랑, 이별 그리고 임에 대한 그리움 등의 내용이 있다.

둘째, 구아리랑의 사설은 임에 대한 그리움, 임과 이별 등의 내용이 있다.

셋째, 구조아리랑은 산 좋고 물 좋은 금수강산의 아름다움과 백두산 등의 지역적인 사설이 담겨 있다.

넷째, 긴아리랑의 사설은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에 대한 내용, 임에 대한 그리움, 세월의 덧없음 등의 내용이 있다.

다섯째, 본조아리랑의 사설은 삼천리강산의 풍년에 대한 바람과 삶의 고단함을 달래는 내용, 백두산 등의 지역적인 사설들이 나타나 있다.

여섯째, 아리랑의 사설은 가슴 아픈 이별의 고개에 대한 내용, 임과의 이별에 대한 내용, 삶의 희망과 애환에 대한 내용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서울·경기 중심의 아리랑의 사설을 보면 임에 대한 그리움,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지역적인 것, 고단한 삶에서 희망을 바라는 내용의 사설 등이 많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2-2. 강원 중심의 아리랑

(1) 사설의 종류

사설(가사)의 종류로는 강원도아리랑, 고성자진아라리, 명주자진아라리, 인제아라리, 정선아리랑, 정선아라리¹, 정선아라리, 춘천아라리 등이 있다.

(2) 사설의 성격

강원 중심의 아리랑의 후렴을 분석해 보면 강원도아리랑은 ‘아리 아리 쓰리 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얼시구 놀다가세’의 후렴구를 사용하고, 고성자진아라리는 ‘어랑 어랑 어히야 허야 더야 내 사랑야’를 명주자진아라리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의 후렴구를 사용한다. 인제아라리는 후렴이 없다.

정선아리랑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라는 후렴구를 사용하고, 정선아라리^{1,2}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로 정선아리랑과 사설이 동일하며, 춘천아라리는 다른 아리랑과는 조금 다른 후렴구를 사용하는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구 아라리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어디가 시구나 저려서’로 앞후렴구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로 동일한 반면에 뒷부분은 다른 진행을 한다.

(3) 사설의 내용

첫째, 강원도아리랑의 사설은 임에 대한 그리움, 자연에 대한 이야기와 인생에 대한 내용 등의 사설이 있다.

둘째, 고성자진아라리의 사설은 시집살이에 대한 내용, 임과의 이별에 대한 내용, 삶의 애환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

셋째, 명주자진아라리의 사설은 농사에 대한 내용, 임과의 만남과 사랑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

넷째, 인제아라리는 사설은 산나물 이름 등의 지역적인 내용의 사설과 시누이 등의 등장과 함께 시집살이에 대한 사설 등이 있다.

다섯째, 정선아리랑의 사설은 ‘아우라지 뱃사공야, 정선의 구멍은’ 등 지역적인 사설이 등장하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울동백이 다 떨어진다.’ 등의 암울한 사회적 배경이 나

타난다. 또한 입에 대한 그리움 등의 내용이 있다.

여섯째, 정선아리리1에서는 감자, 등글레 팥떡, 수수 무설미 등 지역의 음식과 정선 읍내, 영월 영천 등의 지역적인 사설이 보여 진다. 또한 계절을 노래하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재의 사설도 등장한다. 정선아리리2에서는 ‘아우라지 뱃사공아, 출러덩 뱃머리’ 등 지역적인 모습이 보이며, 삼재팔난 등의 삶의 애환과 시련, 입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등이 모여지는 사설이다. 정선아리리3에서는 입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사랑을 기다리는 마음 등의 사설이 보여 지며, 지역적 명칭 또한 나타난다.

일곱째, 정선아리리2에서는 입에 대한 원망과 함께 ‘강릉 삼척에 소금 사러 갔는데’ 등의 지역적인 모습이 보인다.

여덟째, 춘천아리리에서는 다른 아리랑에 비해 사설이 길고 자세하다. 서방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며 한탄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겨진 사설이다.

이와 같이 강원 중심 아리랑의 사설을 정리하면 입에 대한 그리움, 감자, 나물, 땃목, 뱃사공 등의 지역적 삶의 모습, 고단한 삶에서 희망을 바라는 내용, 입에 대한 사랑, 시집살이의 사설 등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충청 중심의 아리랑

(1) 사설의 종류

사설(가사)의 종류로는 괴산아리리, 괴산아리랑, 부여자진아리리, 증원아라성, 청주아리랑 등이 있다.

(2) 사설의 성격

충청 중심의 아리랑의 후렴을 보면 증원아라성은 ‘아리리야 아리리요오 아리랑 얼싸 아라성아’라는 후렴구를 사용하고 괴산아리리는 ‘이야 이야 어리리여 아리랑 에헬싸 에헤리송아’, 괴산아리랑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나았네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부여자진아리리는 ‘아리아리 스리스리링 아리리요 아리랑 고개루 넘어간다’, 증원아라성은 ‘아리리야 아라리요오 아리랑 얼싸 아라성아’, 청주아리랑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과 같다.

(3) 사설의 내용

첫째, 괴산아리리의 사설은 노동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논자리에다 모를 심어, 농부들’ 등에서 노동하면서 부른 내용이 보여 진다.

둘째, 괴산아리랑의 사설은 사랑과 이별, 인생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 ‘요내 청춘을 다 데려가나, 청춘과부의 수절법은’ 등에서 인생을 한탄하는 모습 등이 보이며 ‘날 버리고 가는 남은, 당신의 말 한마디에’ 등에서 사랑과 이별 등의 내용을 볼 수 있다.

셋째, 부여자진아리리의 사설은 ‘방아 언제나 다 찼고 밤 마실 갈까, 잠들기 전에는 못 잊었네’ 등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신세한탄 등의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넷째, 증원아라성의 사설은 ‘초로 같은 우리 인상, 천만년을 사나’ 등 인생에 관한 내용, ‘깊은 들에 눈을 쳐서’와 같은 노동에 관한 내용이 있다.

다섯째, 청주아리랑의 사설은 ‘서른여섯 바퀴를 빙글 빙글 도는데, 삼백년을 누구를 믿고 사는가’ 등 신세한탄 내용이 있다.

이와 같이 충청도 권 아리랑의 사설을 정리하면 임에 대한 그리움, 사회의 변화상을 농촌진흥, 고단한 삶에서 희망을 바라는 내용, 임에 대한 사랑, 부모님 공경과 나라의 충성 등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2-4. 경상 중심의 아리랑

(1) 사설의 종류

경상 중심의 아리랑 사설(가가) 종류로는 광복군아리랑, 문경새재아리랑1, 문경새재아리랑2, 예천아리랑, 밀양아리랑1, 밀양아리랑2, 상주아리랑, 영천아리랑, 대구아리랑, 울릉도아리랑 등이 있다.

(2) 사설의 성격

경상 중심의 아리랑 후렴을 분석해 보면 문경새재아리랑은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주게’라는 후렴구를 사용하고 예천아리랑은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가요’의 후렴구를 사용한다. 상주아리랑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의 후렴구를 사용하고 대구아리랑은 ‘아롱아롱 아롱아롱 아라리야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가네’의 후렴구를 사용한다.

(3) 사설의 내용

첫째, 광복군아리랑의 사설은 ‘광복군 갔다고 말해주소, 삼천만 가슴에 광풍이 불어요’ 등에서 시대적 상황이 사설에 등장하며, 사회적 배경이 나타난다.

둘째, 문경새재아리랑의 사설은 자연에 대한 내용, 임과의 이별에 대한 내용, 삶의 애환, 인생, 시집살이 등 살아가는 다양한 대한 내용이 있다.

셋째, 밀양아리랑의 사설 또한 문경새재아리랑과 같이 삶의 전반에 걸친 내용. 임과의 만남과 사랑, 이별, 시집살이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

넷째, 상주아리랑의 사설은 ‘쪽박의 신세가 웬 일인고’ 등의 인생에 대한 내용이, ‘말깨나 하는 놈은 재판소 가고 일깨나 하는 놈은 공동산 간다’ 등의 사설에서 시대적 상황의 내용이 있다.

다섯째, 영천아리랑의 사설은 임에 대한 그리움과 인생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다.

여섯째, 울릉도아리랑 사설에서는 임에 대한 사랑과 원망, 그리움, 지역적인 모습과 노동이 보인다.

이와 같이 경상 중심의 아리랑의 사설을 정리하면 임에 대한 그리움, 울릉도 처녀, 뱃사공 등의 지역적 모습, 고단한 삶에서 희망을 바라는 내용, 시집살이의 사설이 잘 나타나 있다.

2-5. 전라 중심의 아리랑

(1) 사설의 종류

전라 중심의 아리랑의 사설(가사)의 종류로는 무주아리랑, 무주자진아리, 정읍아리랑, 진도아리랑, 구례아리랑, 순천아리랑,

(2) 사설의 성격

전라 중심의 아리랑 후렴을 분석해 보면 진도아리랑은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리리가 낮에 헤에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낮네’라는 후렴구를 사용하고, 순천아리랑은 ‘아라린가 질알인가 용천인가’를 구례아리랑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낮네 아리랑 얼씨고 날 에워 주소’의 후렴구를 사용한다. 정읍아리랑은 ‘아리랑인가 용천인가 얼마나 좋으면 저 지랄인가’의 후렴구를 사용한다.

(3) 사설의 내용

첫째, 무주 자진아리랑의 사설은 노동에 대한 내용, 인생, 자연, 신세한탄 등의 내용이 있다.

둘째, 정읍아리랑의 사설은 노동에 대한 내용, 신세한탄, 임과의 이별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

셋째, 진도아리랑의 사설은 임과의 만남과 사랑, 이별에 대한 내용, 사후세계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와 같이 전라 중심의 아리랑의 사설을 정리하면 임과의 만남과 사랑, 이별에 대한 내용, 고단한 삶에서 희망을 바라는 내용 등의 사설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장 시공(時空)을 뛰어넘은 아리랑

3-1. 아리랑 주제의 창작 국악 관현악

(1) 최성환의 아리랑

작곡가 최성환은 북한의 공훈예술가이며, 작곡가이다. ‘아리랑 환상곡’이 가장 널리 연주되는 관현악곡으로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 말 알려졌고, 1990년 북측이 남북단일팀 단가합의 때 판문점 회담장에서 녹음된 것을 들려주어 유명한 곡이 되기도 했다.

관현악인 ‘아리랑 환상곡’은 우리민족의 대표적인 노래 아리랑을 주제로 만들어졌다. 이곡은 풍부한 민족적인 선율이 담겨 있으며 수난의 시대와 영광의 미래를 암시하듯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연주되고 있는 곡으로, 슬픈 느낌과는 달리 아름답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개량국악기를 포함한 ‘배합 오케스트라곡’으로 연주되는 이 곡은 일본의 NHK교향악단을 비롯해 100여개의 오케스트라에 의해 연주되었으며, 미국의 카네기홀, 헝가리, 폴란드,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서도 연주되었다.

(2) 백대웅의 남도아리랑

작곡가 백대웅(白大雄, 1943-2011)은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일고를 거쳐 서울대 음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해병대 제5여단 국악대장 및 KBS-FM 차장을 지냈으며, 전남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대원장을 역임하였다.

백대웅의 ‘남도아리랑’은 1994년도에 작곡되어 박범훈의 지휘로 오케스트라 아시아가 초연한 작품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인 아리랑 중에 우리나라 남도지방의 대표적 민요인 ‘진도아리랑’의 선율과 ‘밀양아리랑’의 선율을 테마로 한 작품이다. ‘밀양아리랑’과 ‘진도아리랑’ 두 곡을 함께 엮어 가는데, 두 민요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고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같은 선율을 통해 다른 분위기를 표출해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중간의 활기찬 타악기 연주가 돋보여 한국적인 정서가 녹아 있는 곡이라고 하겠다.

(3) 박범훈의 국악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아리아리’

박범훈은 1972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작곡을 공부했다. 대학 입학 전, ‘민속악회 시나위’ 활동을 통해 전통음악에 대한 작·편곡 활동을 한 그는 서양음악에 대한 밀도 있는 연구를 위해 국악과가 아닌 작곡과에 입학했다. 1976년 중앙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일본 무사시노(武藏野)음악대학 작곡과에 1학년으로 입학하여 대학원까지 7년에 걸치는 기간 동안 작곡과 지휘를 전공했다. 그는 음악적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가행사인 서울아시안게임(1986), 서울올림픽(1988), 한일월드컵(2002), 대통령 취임식 등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였다.

그의 국악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아리아리’는 대우합창단에서 위촉하여 작곡된 곡이다. 당시 대우합창단에 지휘자로 있던 윤학원 교수가 부탁하여 작곡하게 되었다. 곡명이 ‘아리아리’라고 한 것은 강원도 아리랑 후렴에서 따 온 것이다. 곡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곡은 전국에 분포돼 있는 대표적인 아리랑만을 모아 합창과 독창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작곡된 곡이다. 특히 독창부분은 민요를 전문으로 부르는 창자가 부르도록 하여 민요의 정통성을 살리고자 했다.

작곡 당시 서양합창과 우리 전통 민요로 구성된 이 곡은 다소 어울리기 어려운 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후 많은 매체를 통해 연주되어지면서 국악 관현악에서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였다.

(4) 김계옥의 25현 아리랑

김계옥(金桂玉)은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룡정시에서 1957년 3월 20일에 1남2녀 중 막내딸로 태어나, 연변예술학원, 연변가무단을 거쳐, 2001년부터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국악 관현악과 교수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

그의 ‘25현 가야금 변주곡 아리랑’은 25현 가야금이 갖는 넓은 음역과 풍부한 음량을 기반으로 근대 민요인 아리랑을 다양한 리듬변주와 화성 변주를 사용하여 편곡하였다. 특히 연주 기법 면에서 다양함을 보이는데 선율의 연주는 대부분 오른손 주법을 중심으로 하여 연주하지만 오른손만으로 연주할 수 없는 선율은 왼손으로도 연주한다. 바로 이 점이 전통민요의 아리랑이 개량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인 전통의 특성을 상실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작품은 총 172마디로 근대 민요인 아리랑을 ‘주제와 변주곡’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박자의 변화와 솔로의 화려한 변주가 돋보인다. 또한 주제선율과 반주 형식은 리듬 변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3-2. 아리랑을 주제로 한 대중음악

(1) 윤도현 밴드의 아리랑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에 알맞게 편곡된 윤도현 밴드의 '아리랑'은 '오 필승 코리아'와 함께 국민 대표응원가로 만든 곡이다. 1940년대 우리 역사의 슬픔과 암울함의 아리랑에서 2002년 월드컵이라는 세계인의 축제에서 즐기는 아리랑으로의 변화된 계기를 주었다. 원래 아리랑은 세마치장단의 삼박자인 것을 윤도현이 응원가로 바꾸며 4박자의 아리랑이 되었다. 아리랑의 가사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도, '우우우우' 하면서 오로지 모음만으로 진행되는 아리랑의 2절을 함께 하면서 대한민국과 아리랑을 알리는데 큰 몫을 했다.

(2) 김연아의 아리랑

2011년 모스크바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 알맞게 편곡된 '오마주 투 코리아'의 원곡은 짝패의 음악감독 지평권이 '아리랑'을 편곡한 것으로 할리우드의 유명 음악감독 Robert Bennett과 함께 공동편곡한 곡으로, 국악과 클래식의 아름다운 조화라고 알려진 '다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김연아의 공연에 발맞춰 공개된 음악이다. 김연아 선수의 선수권대회 1위 입상과 함께 음악도 자연스럽게 대중적으로 인기를 모았다.

(3) 싸이의 아리랑

2012년 영국런던에서 열리는 30번째 하계올림픽 응원가로 '코리아'를 국립국악원과 국악 지음의 기획, 제작하여 운동선수와 풍물놀이, 부채춤 등을 넣어 우리 문화와 올림픽에 참여하는 운동경기를 넣어 뮤직비디오로 제작하였다. 국악과 락(ROCK)의 절묘한 조화와 애국심을 일깨워주는 아리랑을 넣고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쉬운 후렴구로 구성하여 대중적으로 접근한 좋은 예이다.

3-3. 외국에서의 아리랑

(1) 미주의 찬송가 ‘아리랑’

미국과 캐나다에서 아리랑 선율은 찬송가 229장 ‘christ, you are the fullness’(그리스도, 찬양의 기쁨)에 수록되어 불리고 있다. 미국 개신교 대학인 칼빈대학 음악대 버트폴만 교수(찬송가 편찬위원)가 1987년 아리랑을 삼천여 곡의 찬송가 후보 중에서 추천하여 선정되었으며, 그 이유는 아리랑의 멜로디가 찬송가의 가사와 잘 어울려 선택된 것이라 하였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계속 불리고 있는 세계적인 곡이다.

(2) 나윤선의 아리랑

나윤선은 프랑스 재즈 차트 1위 80주간 스테디셀러 기록, 프랑스 골든 디스크상 수상, 25개국 200여회 공연을 한 재즈가수로 나윤선이 부른 재즈 아리랑은 지금까지 들었던 전통 아리랑 노래 가락과 다르고 신선하다.

2012년 렌토(Lento)앨범에 수록된 아리랑과 2010년 7집 앨범 ‘same girl’에는 강원도아리랑이 수록되었고, 2013년 ‘아리랑’ 세계문화유산등재 기념콘서트를 개최하여, 파리 샤틀레극장 안을 가득 메운 현지인들이 모두 기립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아리랑을 세계 속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3) 살타첼로의 아리랑

살타첼로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피터 싯들러가 1995년 결성한 독일 출신 5인조 재즈그룹이다. 살타첼로의 멤버들은 각자 클래식을 전공한 솔로리스트이자 세션들이다. 피터 싯들러(리더, 작곡, 피아노, 파이프오르간), 피터 레헬(섹스폰, 베이스 클라리넷), 볼프강 싯들러(첼로), 미니 술츠(베이스), 헤르베르트 바흐테르(드럼) 이렇게 독일인 다섯 명으로 멤버 중 네 명이 세계 4대 실내악단인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 출신이다. 1998년 1집 앨범 [On the way]가 프랑스 국제음악대회 TIM 베스트 음반으로 선정되면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국내 최초로 외국 밴드가 국내 음반사에서 음반을 발매하게 된 케이스이며, ‘옹헤야’, ‘강강술래’, ‘강원도아리랑’ 등이 수록된 앨범은 2000년 1월 세계 음반 박람회

좋은 반응을 얻어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발매되기도 했다.

살타첼로는 그동안 한국 음악과 손기정 옹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보여 왔으며, 그들의 음악에서는 한국의 흥과 신명, 어깨가 절로 들썩여지는 ‘그루브’를 느끼게 해준다. 그들의 연주 속에서 우리 국악은 분명 새롭게 태어나고 있으며,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인 독일재즈 앙상블 팀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4장 구전 아리랑을 최초 채보한 '호머 헐버트'

무릎 장단을 치면서 고종이 즐겼던 '아리랑',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아리랑'을 채보(採譜)한 사람은 한국의 은인 '호머 헐버트' 선교사다.

1886년, 그가 조선에 영어교사로 처음 와서 정동에 살 무렵, 옆집 뜰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아리랑 가락을 듣고, 가감없이 원형대로 서양식 음계를 이용해서 채록했다.

그 결과 2012년 '한국의 서정민요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한국 음악사의 새 지평을 열게 되며 세계적으로 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호머 헐버트는 아리랑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영문 월간지에 '한국의 소리음악 (Korean Vocal Music)'라는 논문을 실었다. 아리랑뿐만 아니라 시조, 민요들을 악보와 함께 다수 소개했다. 아리랑 최초로 대략 782연의 소곡으로 이루어진 아리랑이 '재현 가능한 기록'이 되면서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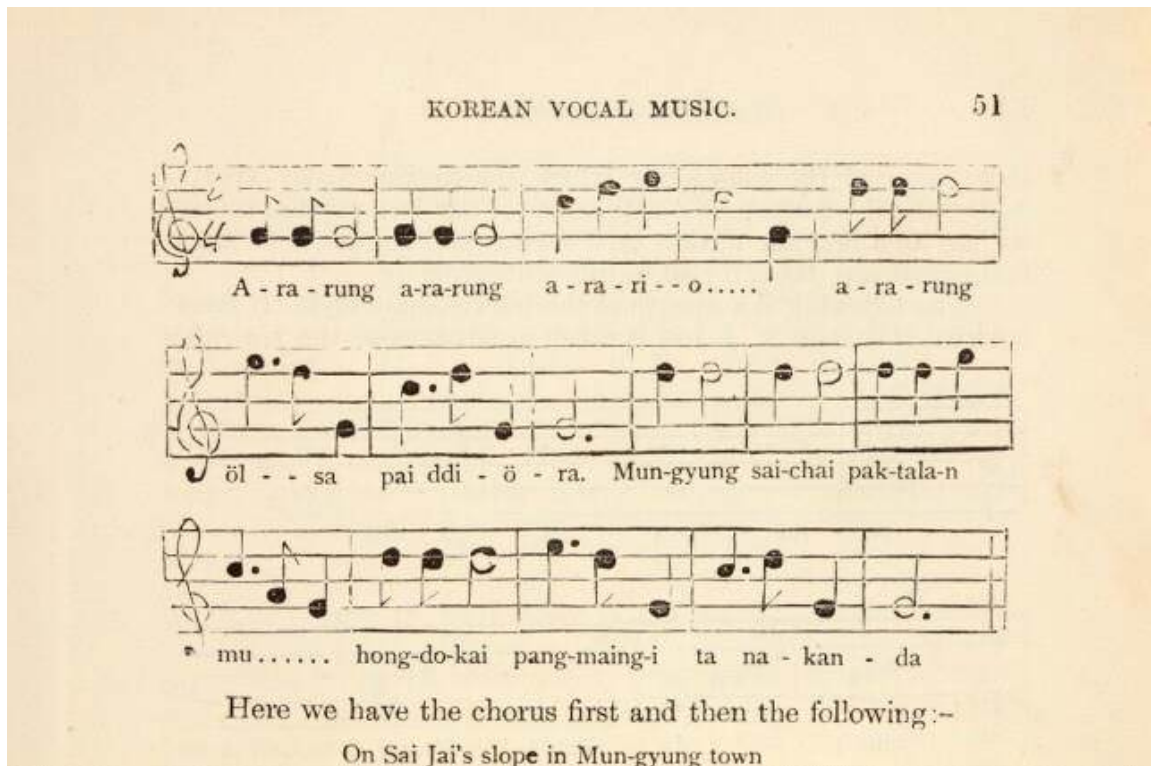


그림 3 1896년 선교사 헐버트가 서양악보로 처음 채보한 아리랑 악보 ©문경 옛길박물관

4-1. 진정한 한국인의 친구 '호머 베절릴 헐버트'

독립유공자이며 진정한 한국인의 친구인 '호머 헐버트' 박사는 (1863~1949)는 "아리랑은 조선인들에게 쌀과 같은 존재"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인은 즉흥곡의 명수이며 워즈워드, 바이든 못지않은 시인들"이라고도 했다.

호머 헐버트 박사는 다트머스대 졸업 후 유니온 신학교에 재학 중일 때 왕립 육영공원의 영어교사가 되기 위해 1886년 7월 조선행 배를 탔다. 당시 그의 나이 23세였다.

육영공원은 고종이 고급 관리들에게 영어와 서구 문물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최초의 근대식 학교다. 그는 5년간 그곳에서 근무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후 1893년, 감리교 선교사로 다시 조선에 입국했다.

1895년 을미사변 당시, 조선의 국모가 시해되자 그는 고종 곁에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 주었다. 또한 침전에서 언더우드, 에비슨 선교사들과 교대로 불침번을 섰다. 그리고 '왕비의 시해 사건은 일본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호머 헐버트 박사는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인 한성사범학교 교장을 역임했고, 1903년 YMCA를 발족해 창립총회 의장과 초대 회장을 맡았다. 또한 덕성학원 설립자인 '차미리사'가 헐버트 박사의 도움을 받아 유학하며 공부를 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글의 우수성을 학술적으로 파헤치고 최초의 한글 교과서인 '지리총서'를 저술했다. 헐버트 박사는 주시경과 함께 맞춤법과 한글을 연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띄어쓰기'와 '점찍기'를 도입했다.

1907년, 헐버트 박사는 쫓겨나듯 강제 퇴국 당했다. 미국에 돌아간 그는 강연과 기고를 통해 조선인의 권리와 자유, 조선의 독립 운동을 적극 도왔다. 대한독립을 외치며 한국인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낸 우리나라 '34번째 민족대표'였다.



그림 4 호머 베절릴 헐버트

4-2. “한국인에 대한 사랑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

1949년, 호머 헐버트 박사는 대한민국 광복절 행사에 국민으로 초청을 받아 40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된다. 한국으로 향하는 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에 대한 사랑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았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만인 8월 5일, 그의 나이 86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국내 최초 외국인 사회장으로 장례가 거행되었고, 그의 아들 ‘셸던 헐버트’도 서울 마포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같이 잠들어 있다. 배우자 메이 한나 헐버트는 1948년 소천했다. 자녀는 2남3녀를 두었다.

그는 명예 한국인, 외국인 독립유공자, 조선의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교육자, 한글학자, 역사학자, 언론인이며 한국 문화화의 선구자, 의사, 체육인, 문화재 지킴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전으로 내려오던 아리랑을 채보(採譜)한 한국학의 개척자이다.

1950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태극장 추서

2013년. 대한민국 외국인 최초로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2014년. 대한민국 '금관문화훈장' 추서

2015년. (사)서울아리랑페스티벌 제1회 '서울아리랑상' 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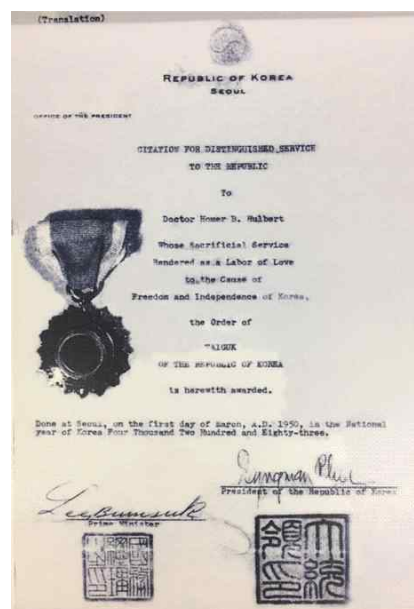


그림 5 건국공로훈장



그림 6 금관문화훈장



그림 7 양화진 헐버트의 묘

제5장 논산을 하나로 짬매주는 논산아리랑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이든 어느 시대이든 시공을 뛰어넘어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달래고 기쁨을 함께한 노래이다.

돌이켜보면 2024년 한해는 논산을 하나로 짬매주는 '논산아리랑'의 원년이다. 논산시의회 서원, 김남충, 민병춘, 서승필 의원은 논산만의 독특한 특색을 살려 논산과 논산시민들의 에너지를 논산아리랑에 담을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논산의 장인정신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논산아리랑'이 탄생하였다.

5-1. 논산아리랑 노랫말의 의미

논산아리랑을 작시한 김홍신 작가로부터 논산아리랑 노랫말의 의미를 직접 들어본다.

시(詩)가 한 소절씩 노래가 되면 참 맛깔스럽습니다. 흥겨운 가락에 절로 너른 춤사위가 흐드러집니다. 아리랑의 작시·작사·작곡은 어깨춤 들썩이는 작업이지만, 지정학적인 생태 환경과 역사, 시류, 민의 등 제반 요소를 한데 모아 불가마에 솟물 녹여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논산 하면 떠오르는 게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먼저 연무대 훈련소를 꼽습니다. 관심사에 따라서 은진미륵, 탑정호 출렁다리, 선사인랜드 같은 명소를 거명하기도 합니다. 강경젓갈, 논산딸기처럼 축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나 논산은 조선의 걸출한 대선비들의 정신사가 깃든 곳이고, 예학의 기둥이며 스승의날 발원지요 충절의 대들보이자 깨달음의 반석이기도 합니다.

[1절] 황산별 들녘 태평성대

먼저 백제와 계백장군, 황산별이 떠오릅니다. 백제의 후손으로서 『대발해』처럼 『대백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소명의식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논산은 충절의 고장이라는 생각이 제일 앞섭니다. 다음으로 역사의 고장, 양반의 고장, 선비의 고장, 멋의 고장, 맛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논산은 역시 백제의 기상이 펴력입니다. 계백장군 결사대가 황산별에서 나당연합의 대군과 사투를 벌일 때, 연전연승 밀리지 않았습니니다. 신라의 화랑 관창이 희생 정신이 전세를 역

전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황산벌의 이슬로 스러진 양국 젊은이들을 동시에 생각해 봅니다. 서로 겨루었지만 가족사랑, 나라사랑만큼은 한결같았을 젊음들을..... 그 충절의 동맥은 끊어지지 않은 채 후삼국, 백제, 조선으로 맥을 이으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은진 반야산의 미륵불은 고려 민중의 희망봉이 되었고, 은진현, 연산현, 노성현의 서원들은 무지몽매한 세상을 밝혀주는 스승이 되어주었습니다. 사계 김장생 선생이 세우신 돈암서원은 인재들을 배출하여 기호유학의 본산이 되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때마다 피로 물들었던 황산벌 들녘이 이제는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백제의 힘, 누런 황토의 땅 놀피의 저력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논산은 양반고장이요 선비고을입니다. 양반(兩班)은 문무(文武)를 함께 갖춘 선비를 가리킵니다. 이 둘을 고루 갖춰야 개인이나 가정도, 고을이나 나라도 태평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종학당 뒷산에는 궁술을 연마하는 활터가 있습니다. 논산은 국방도시 못지않게 지덕체를 겸비한 교육도시, 평화도시 체제의 쌍두마차로 가야 합니다. 농촌과 도시가 어울렁더울렁 상생해야 합니다.

[2절] 금강물결 춤사위

산을 떠받드는 금강도 영강(靈江)입니다. 천리길 금강은 쉬엄쉬엄 너울너울 춤추는데, 때로는 굽이치며, 때로는 세차게 흘러갑니다. 금강 상선약수의 곡선은 누님 치마폭처럼 부드럽고, 그 동선은 인생역정의 순리를 가르쳐 주는 듯합니다.

논산은 어느 곳이든 산과 물을 품고 있습니다. 개태사 쌍계사 같은 고찰과 그를 품은 산들이 노성천, 연산천, 논산천 물에 발 담그면 천지합일의 수채화가 됩니다. 그 물그림자들이 마침내 강경에 이르면 정갈한 금강의 치마폭이 마중합니다. 옥녀봉이 굽어보는 일대에서서는 천지인이 하나가 되어 시대의 인물들을 탄생시킵니다. 옥녀가 승천한 옥녀봉 봉화대에서 점화된 일곱 번의 3·1만세 횃불은 황화산성을 거쳐 노성산으로 공주로 천안으로 번져갔습니다. 물길, 불길이 시대사의 길라잡이가 되는 곳, 근대화의 발상지, 성인들이 태어나고 오간 땅이 논산이고 강경이고 연무입니다.

[3절] 탐정호 물보라 무지개

논산의 자랑거리 또한 탐정호가 있습니다. 탐정호 출렁다리가 동양최장이요 음악분수의 파노라마 역시입니다. 탐정호 수변의 노송 따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힐링입니다. 심신의 눈호강을 시켜주는 담수호 탐정호는 논산의 젓줄입니다.

연장 5천리에 달하는 탐정호 수로는 논산 평야 곳곳을 고루고루 적셔주는 생명수입니다. 다른 곳은 7할이 산지라지만 7할이 농지인 논산은 낙토(樂土)입니다. 대둔산에서 발원하여 탐정호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가 갈한 땅 찾아나서는 탐정호 물줄기, 논벼만 키워주는 게 아닙니다. 논산 곳곳의 오탁백과, 특작물들을 고루 적셔줍니다.

그리하여 논산에서는 딸기뿐 아니라 양촌의 감나무(곶감), 연산의 대추, 상월 고구마와 강경젓갈 등 국내 굴지의 농수산물 축제가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제까지 하지 않더라도 마을 이름 당당 내세우는 수박, 상추, 토마토, 사과, 멜론.... 과연 귀농1번지 논산입니다. 탐정호의 물안개, 물보라가 생활 속에도 피어나는, 오색찬란 무지개마을 논산입니다. 먹거리 여행이라 할 만큼 식도락(食道樂) 비중이 높아져가는 즈음, 논산 특유의 먹거리로 뭐가 돋보일까 맛있는 생각도 해봅니다.

논산 아리랑을 통하여 논산의 의식주뿐 아니라 자연, 역사, 문화 등을 두루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빠진 아쉬운 이야기들은 자유로운 랩 가사로 만들어 보완하려고 합니다. 논산의 자랑거리가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두레풍물은 국내 최고라는 평판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논산아리랑을 짓습니다.

바라건대 논산의 흥이 논산아리랑을 통하여 황산벌 놀피땅은 물론 이 나라 방방곡곡에 흘러넘치면 참 좋겠습니다. 논산과 증원땅을 하나로 짬매줄 논산아리랑, 콧노래가 절로 나네요, 아리랑~ 아리랑~ 논산아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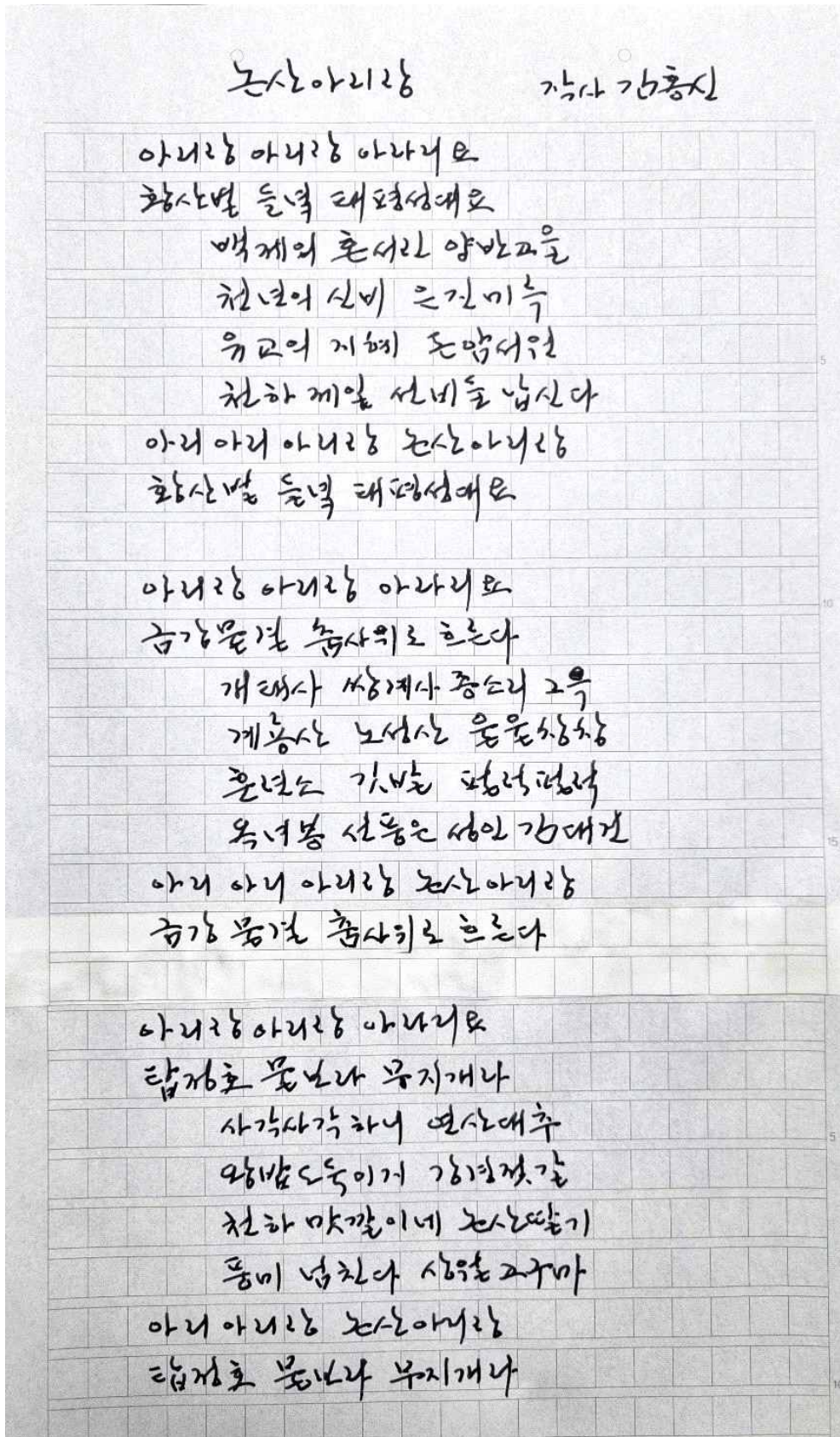


그림 8 논산아리랑_작사 김홍신

5-2. 한(恨)을 넘어 흥(興)을 노래한 논산아리랑

고대 로마제국과 소련의 붕괴가 그랬듯이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그 조직이 와해되는 원인은 전쟁과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부 요인이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시작한 이후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국가 경제와 기술 수준이 세계 선두권을 유지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과 생명에 대한 부정적 지표와 내부 갈등에서도 단연 앞자리를 차지하는 불행을 겪고 있다.

이렇게 공존의 제도와 타협의 지혜가 필요한 지금, 김홍신 작가를 비롯해 박세환 작곡가, 정 경 바리톤, 지현아 명창이 뜻을 모아 "자멸로 달려가는 물줄기를 돌려 우리를 하나로 껴매야한다"는 일념으로 살아 숨 쉬는 충청 양반정신과 논산 선비정신의 숨을 불어넣어 논산아리랑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논산아리랑을 작사한 김홍신 작가는 <얼음 위에 덧잎 자리 펴서 입과 내가 얼어 죽을망정 / 정든 오늘 밤 더디 새소서. 더디 새소서>라는 고려시대 가요 '만전춘별사'와 '가시리'를 인용하며, "두 노래 모두 이별의 아픔을 담은 노래로 우리나라 전통 정서인 한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아리랑' 또한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는 것 처럼 이게 모두 한이 맺힌 것을 노래한 것이다."라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논산아리랑은 아리랑의 전형인 '한'을 넘어 '흥'을 노래했고, 노랫말은 논산의 지정학적인 생태 환경과 역사, 시류, 민의 그리고 논산의 명소와 먹거리 등을 한데 모아 불가마에 쇠물 녹여내듯 논산의 모든 것을 한소절씩 맛깔스럽게 구성되어 있다."고 논산아리랑의 의미를 천명한다.

5-3. 워너뮤직에 공식 음원 출시하며 세계 무대에 진출

논산아리랑은 2024년 6월 6일 세계 3대 음원배급사 중 하나인 '워너뮤직'을 통해 음원이 출시되었다.

지현아 명창의 국악 솔로 버전과 정경 바리톤의 성악 솔로 버전 그리고 듀엣 버전 등 세 가지 버전이 동시에 출시되었다. 논산아리랑이 세계 무대에 우뚝 서는 쾌거를 이뤄낸 것이다.

작곡 박세환



- 뉴욕 매네스 음대 석사졸업
- 럿거스 뉴저지 주립대학교 박사수료 및 줄리어드 음대 이브닝 디비전 수학
- 8장의 정규음반과 다수의 디지털싱글 앨범 발매 및 자작곡 악보집 출판
- 대전시립교향악단 피아니스트 역임
- 현) 충남대학교 외래교수, 뉴욕 JH arts corporations 소속 아티스트

노래 정 경 바리톤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경희대학교 대학원 예술경영학 박사 졸업(Ph.D)
- 이탈리아 Gaetano Donizetti 시립음악원 DIPLOM 오페라 최고 연주자, 전문 연
출가, 지휘자, 뮤지컬
-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주요극장 초청 2,000여 회 공연
- 한경아르떼TV 『아트룸』뉴스 앵커
- EBS FM 『정 경의 클래식, 클래식』라디오 진행자
- Melon Station 『정 경의 브라보 클래식』진행자
- KBS 1TV 『컬러 오브 클래식』진행자
- The Life TV 『클래식은 왜 그래』진행자

Awards received

- 2016 이데일리 문화대상 내일의 예술가상
- 2010 한국 예술 총연합회 선정 예술인상
- 2008 이탈리아 베르바니아 국제 음악 콩쿨 1위
- 2007 한국-미국 전국 음악 콩쿨 1위
- 2007 일본 오사카 국제 음악 콩쿨 2위

노래 지현아 국악인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석사)
- 전국국악경연대회 장관상 3회 수상 (교육부장관상, 문화부장관상)
- 제18회 전국국악대전 대상 (국무총리상)
- MBC전주대사습 장원
- 미국LA, 호주시드니, 러시아국립극장, 일본오사카, 베트남하노이, 중국항저우, 필리핀노블레스국제학교 등 해외초청연주
- 국악방송 로고송
- 가온병창단 예술감독
- 사)한국국악협회 가야금병창 분과위원장
- 영동난계국악단 수석단원

[2024년 6월 10일, 논산아리랑 제작발표회 이모저모]





힘센충남 대한민국의힘

「‘논산아리랑’ 제작발표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랫말을 써주신 김홍신 작가님과 곡을 만드신
박세환 작곡가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청 제일의 양반도시 논산에 없었던 아리랑의
제작 소식이 무척 반갑게 느껴집니다.



은진미륵과 돈암서원,
탐정호와 대둔산 등
논산만의 특색이 담긴 ‘논산아리랑’ 이,

11만 논산시민을 하나로 묶어주고,
지역을 대표하는 노래로 많은 사랑 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지사 

[논산아리랑 가사]

논 산 아 리 랑

- 작사 김홍신, 작곡 박세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황산벌 들녘에 태평성대요
백제의 혼서린 양반고을
천년의 신비 은진미륵
유교의 지혜 돈암서원
천하제일 선비들 납신다
아리랑 아리랑 논산아리랑
황산벌 들녘에 태평성대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금강 물결 춤사위로 흐른다
개태사 쌍계사 종소리 그윽
계룡산 노성산 울울창창
훈련소 깃발 펄럭펄럭
옥녀봉 선풍은 성인 김대건
아리랑 아리랑 논산아리랑
금강 물결 춤사위로 흐른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탑정호 물보라 무지개라
사각사각하니 연산대추
왕밥도둑이지 강경젓갈
천하제일 맛 논산딸기 달콤한 양춘꽃감
풍미 넘친다 상월고구마
아리랑 아리랑 논산아리랑
탑정호 물보라 무지개라
아리랑 아리랑 논산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논산아리랑
논산아리랑 논산아리랑

제6장 논산아리랑의 가야 할 길

우리나라가 지금 K-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융성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백범 김구 선생과 같은 선각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논산시의회가 논산아리랑 제작과 대중화를 위해 논산아리랑 연구 용역을 추진한 것은 논산아리랑을 통해 지역사회의 단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논산의 역사와 문화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6-1. 논산아리랑의 콘텐츠 확대

논산아리랑의 콘텐츠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작금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2가지 담론 ‘중산층’ 및 ‘지역소멸’과 연관해 보다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중산층을 규정하면서 문화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만으로 중산층을 생각하기 때문에 중산층의 실질적인 범위를 놓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산층의 행복지수 등에 의한 실질적인 범위 설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

중산층의 행복 기준을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문화적 측면과 함께 접근했을 때, 중산층의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선진국 반열은 물론 실질적인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임영웅’이라는 유명가수의 경우를 보면, 노래를 잘 부르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고령화의 영향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를 살펴보면 5천1백만여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9백9십만여 명으로 20%에 이르고 있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임영웅을 좋아하겠지만, 주로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이 임영웅을 좋아한다. 자녀들을 다 성장시키고 그 이후 마음을 돌 곳을 찾는 것이 노래이고, 그 때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시너지가 생긴 것이다.

이는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요소가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혼자서도 누릴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층이 혼자서 즐길 수 있는 논산아리랑”이 필요하다.

이와같이 논산아리랑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논산시의회와 논산시의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공적 지원이 이뤄지게 되면, 논산아리랑은 논산만의 콘텐츠를 넘어 글로벌 콘텐츠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왜냐하면 논산아리랑은 이미 세계 3대 음원사 중 하나인 ‘워너뮤직’에 정식 앨범으로 발매되어 글로벌 성장이 준비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논산아리랑에 대한 생애주기 콘텐츠가 더욱 연구되고 확장되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듣고 부를 수 있는 ‘동요로서의 논산아리랑’,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위한 ‘힙합과 랩, 뮤지컬 등의 논산아리랑’ 및 중장년층과 노년층 그리고 노래교실을 위한 ‘가요의 논산아리랑’의 저변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논산아리랑과 논산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논산아리랑 굿즈’ 등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지면 지역 활성화에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문화를 보는 시각은 바로 <A, B, C, D>인데, 논산아리랑은 이러한 <A.B.C.D>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

A는 ‘Agreement’로 모두가 동의하는 문화, B는 ‘Boost’로 정신을 북돋우는 문화, C는 ‘Connect’로 모두가 연결되는 문화, D는 ‘Delight’로 누구나 즐기는 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논산아리랑>이 바로 <A.B.C.D>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논산아리랑이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더욱 활발하게 조명되고 대중화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한다.

- 논산아리랑은 단순한 음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논산의 문화적 상징이자 시민 감성의 매개체이기에 공적 자원과 연결해 지속적인 전승 기반을 마련
- 현재의 논산아리랑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원천이 되어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 등은 물론이고 발라드, 록, 힙합뿐만 아니라 무용과 관현악에서도 논산아리랑의 선율과 정서를 만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방안 마련
- 논산아리랑이 꾸준히 전승되고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동기부여가 제공 되어야 한다. 즉 논산시 청소년청년재단 등을 통해 ‘논산아리랑 경연대회’ 등을 펼쳐 자라나는 세대들이 논산아리랑과 함께 즐기고 체험의 장과 논산아리랑 가요제 등을 마련
- 논산아리랑 컬러링, 논산아리랑 스티커, 논산아리랑 캐릭터 등의 논산아리랑 굿즈를 개발. 논산딸기축제와 젓갈축제 등에서 논산아리랑 굿즈 개발 및 판매 프로그램 운영

참고문헌

REFERENCE

국문 자료 |

- 조규익 · 조용호(2010). 아리랑 연구총서 1. 송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학술총서 23, 학교방.
조규익 · 조용호(2014). 아리랑 연구총서 2. 송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학술총서 46, 학교방.
조용호(2011). 아리랑 원형연구. 송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학술총서 25, 학교방.
윤수동(2012). 조선민요 아리랑(민족의 가락 애환의 선율). 국학자료원.
지승 스님(2018). 민족의 혼 아리랑(바이칼에서 한라까지). 우리책.
김재현(2015). 한반도에 올려져진 희망의 아리랑(한국기독교 민족지도자 50인). KIATS(키아츠).
김삼웅 · 임진택 · 김태균(2023). 거례의 노래 아리랑. 두레.
김상렬(2022). 백두산 아리랑. 나남.
호머 헐버트(2016). 헐버트 조선의 혼을 깨우다(헐버트 내한 130주년 기념 헐버트 글모음). 참좋은친구.

신문기사 / 웹사이트 / 통계자료 |

- 놀뫼신문 <https://www.nmnews.co.kr>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https://hulbert.or.kr>
워너뮤직코리아 <https://www.warnermusic.co.kr>
문경시 <https://www.gbmgo.kr>
논산시 <https://www.nonsan.go.kr>
김홍신문학관 <https://www.kimhongshin.com>
통계청 <https://www.kostat.go.kr>
한국관광공사 <https://kto.visitkorea.or.kr>

논산시의회 정책연구 2024

논산아리랑 연구용역

발행인 논산시의회

발행처 문화공감협동조합

충남 논산시 은진면 와야길 8

(우편번호) 32998

전화 042-840-5000 팩스 041-734-5567

발행 2024년 11월

ISBN

© 2024 논산시의회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문화공감협동조합. 2024. 「논산아리랑 연구용역」. 논산시의회.

비매품